

# 따뜻: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

공동체로  
살기

Sep+Oct 2023  
Vol. 226

당신과 함께라면!

혼자서 좋은 것도 많지만  
함께여서 더 좋은 것도 많다는 것  
<따뜻:한난>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가을에는 맑은 공기를 마음껏 쉼터  
어디든 가볼까요? 좋은 사람과 함께요!

# Contents



## COVER STORY

맑은 하늘에, 색색의 웃을 입을 나무들.  
이 풍경이 아름다워 오래간만에 창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저 멀리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네요.  
자연과 이웃 그리고 동물이 어우러진 풍경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아리

- [www.kdhc.co.kr](http://www.kdhc.co.kr)
- [www.youtube.com/c/kdhcmedia](https://www.youtube.com/c/kdhcmedia)
- [blog.naver.com/kdhc2017](http://blog.naver.com/kdhc2017)
- [www.facebook.com/FKDHC](https://www.facebook.com/FKDHC)
- [www.instagram.com/kdhc\\_on](https://www.instagram.com/kdhc_on)

발행일 2023년 10월 17일(통권226호)  
등록 1993년 11월 30일  
신고번호 성남, 마00027  
발행처 한국지역난방공사  
발행인 정용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 02)786-2999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난  
웹진 바로가기



## SECTION 따뜻한, 마음

## SECTION 뜻깊은, 걸음

## SECTION 한번더, 웃음

## SECTION 난방, 요즈음



04

**04**  
테마 필치기  
공동체로 살기

**12**  
혁신, 더하기  
우리의 데이터에 미래가 있습니다

**20**  
반가운 만남  
공기 조각가 고흥석

**38**  
취미 유발자  
이 달달함에 치인다 치여!

**06**  
테마 에세이  
낮선 존재와 공동체 이루기

**14**  
효율, 늘리기  
지역난방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빛나는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24**  
이런 문화  
문해력, 이대로 괜찮을까

**42**  
여기서 행복  
우리 젊은 날의 숲에서 "같이 걸을까?"

**08**  
생각 보태기  
함께 사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

**16**  
안전, 곱하기  
안전 공감대 제고를 위한 한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28**  
그림의 위로  
빈센트 반 고흐

**46**  
듣는 서점  
언어의 온도

**10**  
특독 양케트  
좋은 건 같이 해야 더 좋아요!

**18**  
투명, 높이기  
한난과 함께 행복의 에너지를, 따뜻한 에너지를~!

**30**  
요즘 밥상  
쌀쌀해진 날씨엔? 꽃게 어묵탕

**48**  
함께 시너지  
청주개신주공 3단지 그린빌아파트

**32**  
에코 트래블  
바다에 떠 있는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연흥도

**52**  
한난 뉴스

**36**  
콘텐츠 in 에너지  
땅과 함께 만드는 돌봄의 선순환 다큐멘터리 <대지에 입맞춤을>

**54**  
독자와 함께

**55**  
한난 SNS



42



32



38



46

**공** 동체.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학교, 가족, 회사, 친구, 동호회, 이웃 마을...

우리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수많은 공동체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면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기에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배려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요.

그래야만 탈 없이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혼자가 익숙해진 시대를 살다 보니

누군가와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어요.

# 공동체로 살기

하지만 사소한 것부터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함께하는 것만큼 따뜻하고 기분 좋은 삶은 없을 거예요.

기분 좋은 미소를 머금고 인사하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기.

친절하게 말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단단한 공동체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명화를 남긴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훌륭한 업적은 함께 일컫낸 작은 것들의  
연속으로 이뤄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 봅시다.

공동체로 살  
**기.**

## 낯선 존재와 공동체 이루기

글 김고은 작가



집은 이미 만석이었다. 인간 넷과 개 셋이 함께 산 지 10년이 넘은 시점이었으므로 거실과 작은 방들은 이미 일곱 구성원의 생활에 맞게 꾸며져 있었다. 인간들이 모두 자기 앞가림을 할 만큼 큰 동안, 개들의 시간은 훨씬 더 빨리 흘렀다. 그들은 피부 알레르기나 백태로 고생하는 노견, 마취약 부작용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노견,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불안해하는 노견이 되었다. 노견 셋과 노년을 바라보는 인간 둘, 언제 이 집을 떠날지 모르는 청년 둘이 사는 집에 새로운 생명체가 들어올 자리 같은 건 없었다. 없는 줄 알았다.

더운 열기가 천천히 사그라들며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가을이었다. 어느 날 너무 작고 까매서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털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웠던 아기 고양이가 마당에 등장했다. 이곳은 담장을 공유하는 수도권의 주택이었지만, 좁은 공간에 건물이 뽕뽕하게 세워져 있었으므로 고양이가 걸어들어 틈새는 없었다. 그렇다고 홀로 기어오를 수도 없었으니, 누군가에 의해 마당에

도착하게 된 것이 분명했다. 홀로 덩그러니 남아 쓰레기봉투를 뜯는 아기 고양이를 보며 인간들은 당황했다. 엄마 고양이가 데리러 올 수도 있으니 지켜보기로 했다. 덕분에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노견들은 마당에 나가 흙을 파고 햇살을 쬐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더운 기운을 완전히 몰아냈는데도 엄마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이 아기 고양이는 마당을 점령했다. 인간 셋이 모두 나가고, 남은 인간이 늦잠을 자고 있으면 아기 고양이는 외벽을 등반해 창문 앞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신경질적으로 ‘애옹 애옹’ 울며 밥시간이 늦어졌다며 인간들을 호되게 꾸짖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을밤 공기가 서늘해질수록, 인간들은 마음을 졸였다. 엄마에게 생존 교육을 받지 않은 아기 고양이가 홀로 겨울을 날 수 있을까?

결국 인간들은 오랜만에 가족회의를 열었다.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한평생 개하고만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었으므로 고양이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아무리 인터넷을 찾고 주위에 조언을 청해도 고양이라는 생명체에 대해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이들은 오로지 감에 의지해 주장을 펼쳐나갔다. 60대 남자가 말했다. “고양이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 지금 집에는 아프고 늙은 개들도 있잖아.” 20대 여자가 말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사는 게 고양이에게는 더 불행한 일일 수도 있어.” 30대 여자가 말했다. “도시에 사는 고양이에게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50대 여자가 말했다. “겨울이 되었을 때, 마당에 아기 고양이가 있으면 마음이 너무 쓰일 것 같긴 해.”

인간 넷은 자신들의 손만한 크기인 아기 고양이를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낯선 존재는 두려운 대상이다. 고양이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렇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이 아픈 강아지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르니까, 노년의 나이에 고양이와 가까워지는 것이 무리일 수 있으니까.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자고 말하는 인간도 마찬가지로, 마당에서 고양이가 죽어버리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낯선 존재의 죽음을 마주하고 괴로워지고 싶지 않으니까. 토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다리 타기’ 게임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다. 가장 강력하게 집에 고양이 들이는 일을 반대했던 60대 남자는 먼저 나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오른쪽 동아줄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의도와 일치하지 않았다. 마당의 아기 고양이는 자신의 입성을 열렬히 반대한 인간이 내려준 동아줄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 달 동안은 30대 여자의 방에만 머물렀다. 30대 여자는 짐을 다 들고 집 안에서 유랑 생활을 해야 했다. 가끔 방 안으로 들어가면 아기 고양이는 털을 세우고 목을 굽는 소리를 내며 인간을 위협했다. 그럴 때마다 30대 여자는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다. 고양이가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랬다. 그가 갑자기 뛰어올라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도, 방충망에 달라붙어 기어 올라가도 온몸의 세포가 과민반응을 했다.

30대 여자는 고양이의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영상을 찾아봤고, 고양이의 습성을 알기 위해 책을 찾아봤다. 하악질이 상대를 해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조 요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야 더 이상 소름이 돋지 않게 됐다. 60대 남자도 엇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처음엔 아기 고양이가 후다닥 뛰어가는 모습만 봐도 놀라며 무서워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는 고양이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즈음, 그는



김고은 작가

공부하는 인터뷰어(@goeunk1m). 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에서 11년째 공부 중이다. <함께 살 수 있을까>를 썼고, <다른 이십대의 탄생>과 <낭송 사자소학>을 함께 썼다.

# 함께 사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

1인 가구가 늘어나서인지 혼자인 게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잊지 말았으면 해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따뜻·한난> 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더불어 산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글 편집실

## 독자 박연주 님 아이에게 따뜻한 세상을



엄마가 되면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란 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주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유모차 끌면 문 열어 잡아주시고, 엘리베이터 기다려 주시고, 식당에 가면 가끔 이모님들이 밥 먹으라고 아이도 대신 봐주시고, 심지어 모르는 어른신들이 아이 용돈 하라고 주시기도 해요. 요즘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진짜 더불어 산다는 게 뭔지 와 닿더라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 독자 김지영 님 사람 사는 맛 알려준 시골 생활



시골에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도시에서처럼 이웃과 왕래 없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텃밭에서 키운 열무로 담갔다가 김치를 주고, 콩도 갓 뺏다며 밥에 올리라고 주시더라고요. 물론 시골 생활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잘 알려 주셨고요. 이렇게 서로서로 맛있는 것 있으면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지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라는 걸요. 갈수록 삭막해지는 세상에 이런 풍경 오래 누리고 싶습니다.

## 독자 이유림 님 난처한 상황에 도와준 이웃들 최고!



운전하다가 셋길에서 담벼락도 무너뜨리고, 후진해 나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집마다 사람들이 나와 "여기로, 저기로!"하면서 힘을 합쳐 겨우 차를 뺐어요. 요즘 집 밖에 난리가 나도 잘 나와 보지 않는다는데 러닝셔츠 차림으로, 슬리퍼만 신고 뛰어나온 사람 등등 모두 자기 일처럼 도와주셔서 놀랐습니다. 더위에 누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덕분에 더불어 살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 독자 김은지 님 정을 나누는 삶



귀농 후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배추 모종을 제대로 심지 못해 모두 파냈어요. 시내까지 다시 나갈 생각만으로도 지쳤는데, 이웃 할머니께서 배추 모종이 많이라며 나눠주셨어요. 밤새 비가 촉촉이 온 아침, 모종을 심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제가 만든 식빵과 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빵 생각이 났었다며, 아주 기뻐하셨어요.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 독자 이춘석 님 순산하게 도와줘서 감사워요



얼마 전 아내가 출산 예정일을 1달쯤 앞두고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구급차 부를 겨를도 없이 자차를 이용했죠. 비상등을 켜고 병원으로 가는데 꽉 막힌 도로와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고 있노라니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차 뒷유리에 "급한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차들이 적극적으로 길을 양보해 주셨어요. 다행히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해 순산할 수 있었죠. 아직 우리 사회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 11+12월호 생각 보태기 주제 살면서 겪었던 기적 같은 일

11+12월호 주제는 '살면서 겪었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살면서 겪었던 기적 같은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따뜻·한난> 웹진을 통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기간 : 2023년 11월 13일까지

## 좋은 건 같이 해야 더 좋아요!

좋아하는 일을 좋은 사람들과 하면 즐거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마침 출지도 덥지도 않은 가을이네요. 이번 가을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 볼까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질 테니까요.

글 편집실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웹진



#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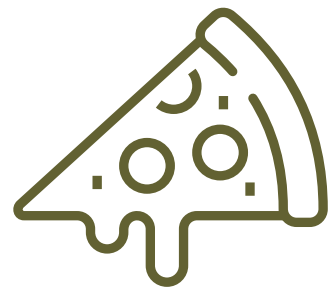
##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여행’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답변이기도 해요. 돈과 시간을 들여 멀리까지 가는데, 불편한 사람들과 갈 수는 없잖아요. 자고로 여행이란 무얼 해도 좋은,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들과 가야 그 즐거움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독자들 역시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한 독자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가서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꼭 쉬다 오고 싶네요”라고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또 어떤 독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신비의 섬 울릉도로 여행 가고 싶다는 바람도 이야기했습니다. 울릉도가 요즘 여행 가기 좋은 섬으로 뜨고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꼭이요!

# 15%

## 맛있는 음식 먹기

우리 인생에서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쁜 일을 찾아보려면, 단연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맛있는 음식’이 주는 기쁨이요. 생각해 보면, 여행을 가서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말에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맛있는 음식은 꼭 먹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그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 법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했기에 더욱 그 맛이 깊어진다는 사실! 이제라도 알았다면, 천고마비의 계절 먹으러 떠나봅시다. 꼭 맛집을 가지 않아도, 장을 봐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어도 좋아요. 음식은 거들 뿐,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 12%

## 드라이브&캠핑



가을과 딱 어울리는 답변이네요. 좋은 사람과 드라이브 또는 캠핑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드라이브하면서 캠핑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분 전환도 되고, 활력이 생기거든요”라고 답한 독자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떠나는 캠핑,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다가, 한적한 캠핑장에 자리를 잡고 마음껏 자연을 누리보기. 해보지 않았다면, 이번 가을에 한 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떠세요?

# 8%

## 별 보기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별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지고요. 하지만 갈수록 별 보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영화 <라라랜드>의 주인공들처럼 별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요!” 한 독자의 답변인데요. 꼭 이룰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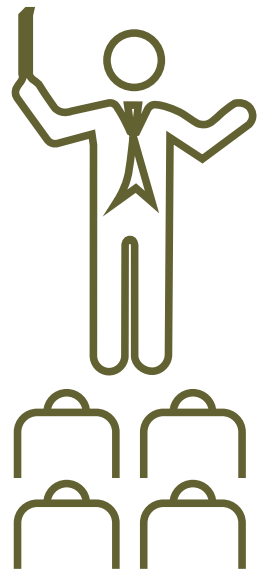
##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가장 좋은 게 사진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함께한 시간을 추억하기 좋고, 간직한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휴대전화로 찍는 건 좀 식상하고, 사진관에서 찍는 건 부담스럽다면, 요즘 유행하는 ‘네 컷 사진’은 어떠세요? 생각보다 재미있게 추억을 남길 수 있답니다.

# 3%

## 공연 보기



“좋아하는 사람과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고 싶어요. 클래식이 주는 감동이 더 클 것 같거든요”라고 답한 독자처럼, 올가을 아니 다가오는 연말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공연을 보는 건 어떨까요? 장르는 상관없습니다. 함께 하는 그 시간이 곧 장르가 될 거예요. 🍷

11+12월호 특독 앙케트 주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가요?

나눌 수 있어 더욱 따뜻한 연말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가요? <따뜻·한난> 웹진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기간 : 2023년 11월 13일까지

# 우리의 데이터에 미래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업무혁신을 위한 데이터 전문 인력 '데이터 마스터즈'가 출범했다. 지난 8월 18일 키오프 교육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 한남 데이터 마스터즈를 만나보자.

글 편집실 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남  
데이터 마스터즈  
1기 출범



### 데이터 마스터즈(Data Masters)란?

데이터 기반 업무혁신 사례 증가에 따라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을 통해 선정된 데이터 마스터즈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전문가 총 23명으로, 비효율적인 업무 및 현안 과제를 발굴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무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데이터 마스터즈의 활약을 기대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은 평소 데이터 기반 경영이 아말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인터넷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도 저항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꾼 것처럼 데이터 기반 경영도 기존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또한 데이터 마스터즈가 직원들이 이러한 데이터 기반 경영으로 가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 데이터 마스터즈의 목표

데이터 기반 경영을 실현하려면 첫 번째로 데이터가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마지막은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문화다. 한남 데이터 마스터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력과 그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활동의 목표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것이 아닌, 기존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무혁신을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

### 한남 데이터 행정 추진 방향

 <b>의사 결정</b> 경험, 직관 기반 ⇨ 데이터(증거) 기반	 <b>업무 처리</b> 수기 위주 처리 ⇨ 자동화 처리
 <b>자료 소유</b> 특정 부서 독점 ⇨ 공사 및 타 기관 공유	 <b>분석 환경</b> 전문가만 분석 ⇨ 전 직원 분석 활용

우리가 바로!

## 한남의 데이터 마스터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무혁신을 추진할 한남 데이터 마스터즈를 소개합니다.  
이들의 활동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Q. 데이터 마스터즈에 지원한 동기가 궁금합니다.



열수송관리부  
김주용 연구원

열수송관의 상태 진단, 수명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요. '열수송관 성능시험센터'를 통해 장기 사용 열수송관에 대하여 한남만의 값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죠. 이번 기회에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활용과 효과적인 시각화 역량을 늘리고 싶었어요.



구역전기부  
배준환 대리

업무 과정에서 데이터 구조가 분석에 부적합하게 설계되면, 같은 일을 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자주 겪었어요. 데이터 구조 설계부터 분석까지 일련의 과정을 학습해 전기 영업시스템 등 현업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싶었습니다.



청주지사 고객지원부  
백아현 주임

지사 고객지원부의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업무는 취합 업무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자료 작성과 취합을 자동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었어요. 향후 수십만 개의 데이터도 관리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쌓고 싶습니다.



홍보부  
이상현 처장

평소 회사 홍보 업무를 할 때 경험이나 직관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닌 빅데이터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빅데이터를 통해 정확한 분석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홍보 업무 역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역난방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빛나는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고객의 열사용시설에 대한 효율향상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접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난방 에너지 효율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영광의 수상작을 공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 모두들 축하합니다!

### 일반 분야

구분	수상자	주제
절감 으뜸상	김*미	새는 열은 막고 닭은 열은 지키자
고효율상	권*경	일일 난방비 확인으로 난방절약을 생활화!
	김*현	열에너지를 똑똑하게 사용해요
혁신상	김*수 (초당마을주공3단지)	세대별 외기대비 난방온도조절표 제공
	수원대대 화공중대 에너지절약분대	에너지 교육으로 시작하는 미래시대 에너지 절감
	박*영	에너지 가계부 쓰기 캠페인

### 전문 분야

구분	수상자	주제
절감 으뜸상	김*경	열소비 상위 5%세대 진단서비스 제공으로 난방비는 ↓ 에너지 절감은 ↑
고효율상	(주)에스코프로	지역난방 2차측 흡수식냉동기 운전 최적화 기술
	신*철	흡수식냉동기 세관 지원사업
혁신상	이*열	난방·냉방 보급수 수도미터 설치 지원사업
	구*우	판형 열교환기 세관지원사업
	진*호	사용 자동제어설비 개선으로 불필요한 열요금 예방과 열원 손실량 절감

## 수상자 인터뷰



전문 분야 고효율상

(주)에스코프로  
권석준 대표이사

**Q. (주)에스코프로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주)에스코프로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에너지성능 최적화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포스코 사내 ESCO 벤처를 모태로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300여 건 이상의 에너지 진단, 에너지 절감 사업,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기술처 고객설비효율화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난방 에너지 효율향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주)에스코프로는 지역난방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에스코프로가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 데이터 분석 기술과 에너지 절감 노하우를 활용해 수송가 2차측 지역난방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지역난방 에너지 효율향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소개받았죠.

**Q. (주)에스코프로에서 생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200km에 이르는 열배관망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보다 고객과 사업자들에게 더 친밀하고 가깝게 다가서고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뛰어난 장점인 것 같아요.

**Q. (주)에스코프로의 유의미한 성과가 궁금합니다.**

2022년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역난방 시스템 및 스마트 운전 방법' 기술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주)에스코프로가 지향하는 플랫폼 기반의 구독형 서비스 사업에 알맞은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기술을 활용하여 주거 및 공동주택 부문에서 에너지 절감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사업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 이번 공모전에서 고효율상을 수상하신 '지역난방 2차측 흡수식냉동기 운전 최적화 기술'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세요.**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2차측에서 고정온도로 냉수를 공급하거나, 외기보상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온도의 경우 기계실 관리자의 경험에 따라 임의로 온도 설정을 하고, 외기보상제어를 사용하더라도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냉방수요 특성에 맞지 않게 공급온도를 설정해 에너지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죠. '지역난방 2차측 흡수식냉동기 운전 최적화 기술'은 외기온도와 수요처 고유의 냉방부하 패턴에 맞추어 최적 냉수 공급온도 설정점을 산출하고, 해당 정보로 운전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냉방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는 공급온도를 낮게 하여 에너지공급 품질을 높이고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는 공급온도를 높여 외기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냉방 수요처에 대한 지역난방공사 거래용 계량기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 수요처 부하패턴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계산된 최적의 냉수 공급온도 정보를 기존 DD나 CCMS에 지속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현장에 적용하죠. 간단한 논리의 기술이기는 하지만 데이터 분석, 설비 운영, 현장 관리자 운전 방법, 인공지능기술, 설비 제어 등 오랫동안 (주)에스코프로가 에너지 절감 분야에서 쌓아 온 여러 지식과 경험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중앙공급식 냉방시스템에 응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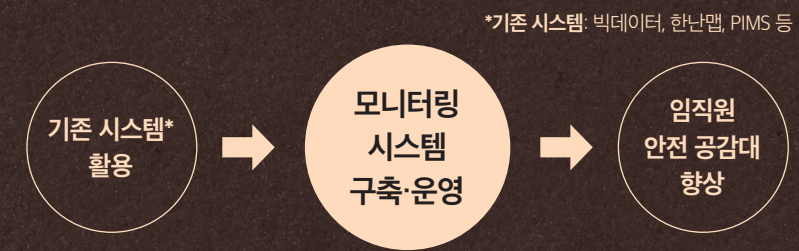


# 안전 공감대 제고를 위한 한남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임직원 안전 공감대 제고 및 안전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해 '한남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  
글 편집실

## #구축 목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앞서 전사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통합 관리,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 안전보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 #추진 사항



**대시보드 1차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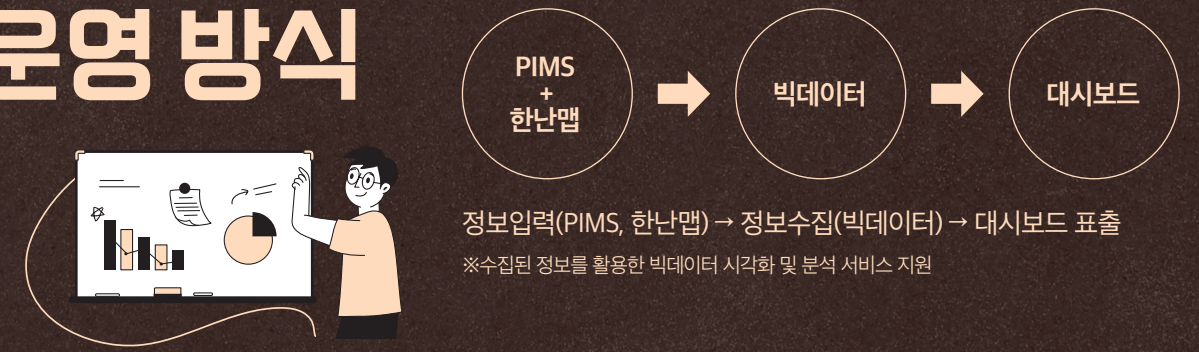
(화면구성) 대시보드 2개 Page 화면구성(건설안전부)  
(DB 연계) 대시보드(Pop-up) 데이터 연계 및 화면 구현(정보시스템)

**빅데이터 연계 '한남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2차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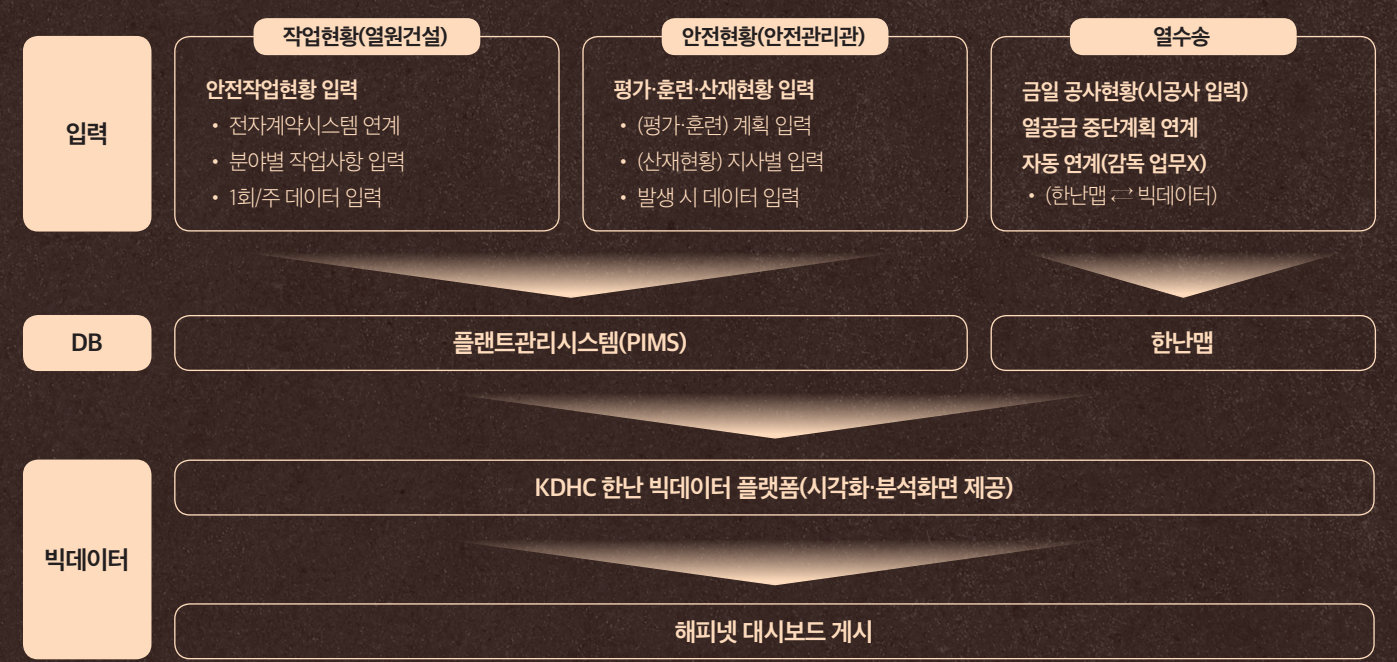
(데이터 마트) 수집된 데이터(한남맵, PIMS)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 마트 구축  
• 정보기획부 직원 컨설팅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담당자 구축

(시각화) 시각화 솔루션(MSTR)을 활용해 상세화면 시각화  
• 정보기획부 및 건설안전부 시각화 솔루션(프로그램) 직접 활용해 제작(구축)

## #운영 방식



## #시스템 운영 방식



## #도입 효과

-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 전 지사 안전 핵심 사항 실시간 파악 및 임직원 안전관심 유도
- 통합안전 관리**
  - 분산된 데이터 통합관리 가능(통계 및 분석 기능 제공)
  - 기간별, 지사별, 유형별 등 다양한 조건 검색 기능 및 시각화 제공

# 한난과 함께 행복의 에너지를 ♪ 따뜻한 에너지를~!

지난 8월 19일부터 10월 7일  
매주 토요일 저녁,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이  
음악 소리와 합성으로 가득 찼다.  
소리의 근원지는? 바로 2023 파크콘서트 현장이다.  
초록빛 공원을 가득 메운 행복의 선율을  
<따뜻:한난> 취재팀이 따라가 봤다.  
글 최선주 사진 박시홍 영상 최의인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2023 파크콘서트



**반가운 손님, 파크콘서트**  
아직은 더위가 가시지 않은 여름과 가을 사이, 분당 중앙  
공원에 위치한 야외공연장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  
었다. 이유는? 2023 파크콘서트를 즐기 위해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후원하고 성남문화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는 파크콘서트는 매년 이 일대 주민들에게 '한밤의  
음악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멈췄다가 지난 2022년부터 공연이 재개되어서인지 시민  
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유모차를 끌고 온 부부, 할머니 손잡고 온 아이들, 돛자리  
를 둘러메고 좋은 자리를 찾는 가족, 간식을 들고 온 학생  
들까지. 그 연령대도 다양하다. 이 모습에서 파크콘서트  
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  
낄 수 있었다. 매년 세대를 불문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및 공연단을 초청하는 것도 인기 요인이 아닐까. 이  
번에는 거미&에일리, 라포엠, 뮤지컬 갈라 콘서트(정선  
아, 서경수, 진태화, 양서운), 이자람 인 콘서트, 성남시립  
교향악단, 코리안 드럼, 잔나비를 초청해 지난해 못지않  
은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즐거워 공연, 한난과 함께해요**  
지난 8월 26일은 JTBC 예능 프로그램 <팬텀싱어 3>를  
통해 결성된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의 공연이 있던 날  
이다.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  
던 관객들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전광판 이벤트도 마  
련되었다. 대기하고 있는 관객들을 전광판에 비추며 포즈  
미션을 준 것. 관객들은 자기 얼굴이 전광판에 보이자 부  
끄러워하면서도 미션을 이어 나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이날 중앙공원을 찾았다. 파크콘서  
트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캠페인의 이름은 '하루 1kWh 줄이  
기'.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법을 소개하고 한난의 브랜  
드 슬로건인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품을 나눠줬다.  
기념품을 받은 한 시민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다양한 일  
을 하고 있네요. 매년 파크콘서트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 방법까지 안내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라며 응원을 보냈다. 전광판 이벤트와 한난의  
캠페인이 종료되자, 라포엠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기다리  
던 관객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그들의 공연을 즐기며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저녁을 보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는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공기기업으로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사회  
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시민 김문영씨

남편이랑 같이 콘서트 구경 왔는데요.  
생각보다 넓은 잔디밭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도시락도  
먹으면서 공연을 보니까 뭔가  
개방감도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나올지 모르고 구경 왔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시민 김서현 어린이

안녕하세요. 김서현입니다.  
저는 콘서트에 또 오고 싶어요.  
지난번에는 에일리 언니가 와서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거미 언니도 좋았어요. 신나는 노래가  
아니어도 즐거웠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라포엠의 응원이 담긴  
2023 파크콘서트 현장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기로 짓는 예술 삶의 울림을 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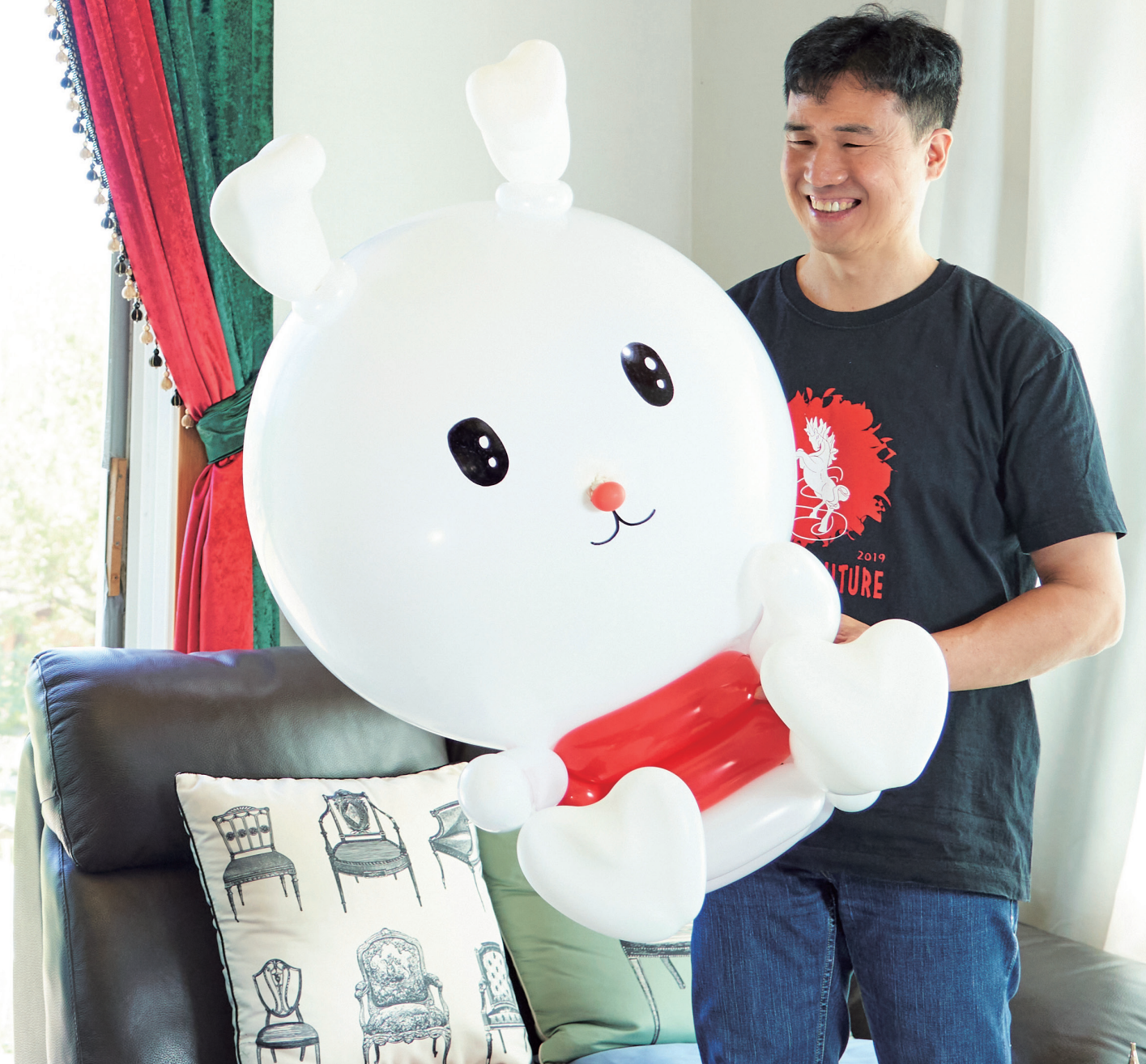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되레 더 풍성한 이야기를 품는다.  
고홍석 공기 조각가(시각장애인)는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며  
다양한 예술작품을 탄생시키고, 이를 통해 대중과 교감한다.  
그의 작품은 관습적 기대와 편견을 말끔히 거두고,  
더 넓은 시선으로 사유하게끔 이끈다. 채움과 비움을 통해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글 김주희 사진 고인순 영상 최의민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 조각가  
고홍석





**Q. 작가님은 공기 조각가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풍선을 다루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10대에 발생한 질병으로 시력을 잃으면서 20대 중반까지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 평소에 관심 있던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풍선 아트였죠. 그로부터 25년 동안 풍선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Q. 풍선 안에 담는 '공기'를 활용해 작품을 완성하고 계시잖아요. 작품 소재로서 공기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의 신체적 특징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공기라는 물질은 시력을 잃은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공기를 풍선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창작 활동으로 삼게 되었어요.

**Q. 새로운 도전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힘든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나요?**

**A.** 물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의 장점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따라 만드는 것에 익숙한데, 저는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려가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나만의 창작 스킬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

2018년 미국 LA 초대전 때는 작품 속에 관객들을 '참여'시키는 전시를 선보였어요. 전시 기간 내내 관객들이 풍선을 만지면서 작품과 교감하도록 했죠. 그 덕분에 작품이 시시각각 달라졌지요.



다. 반면 실제 사물이나 대상을 작품으로 만들 경우, 구체적인 형상을 인지하고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삶의 동반자인 노유미 씨가 저의 눈이 되어 많은 도움을 줍니다.

**Q. 그간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셨습니다.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 풍선에 담긴 공기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공기가 해체되지만 그 본질과 내면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창조와 해체' 과정을 통해 순환적인 자연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작품을 통해 유한하거나 영구적이라는 관점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을 충분히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삶의 가치를 전하고자 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와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A.** 2018년 미국 LA 초대전 때는 작품 속에 관객들을 '참여'시키는 전시를 선보였어요. 전시 기간 내내 관객들이 풍선을 만지면서 작품과 교감하도록 했죠. 그 덕분에 작품이 시시각각 달라졌지요. 이 전시의 클라이맥스는 엔딩이었습니다. 작품을 해체할 때 '팝 세리머니'를 진행했어요. 하나 둘 셋 카운트다운과 함께 동시에 풍선을 터트리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관객이 다가와 제 두 손을 잡고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때의 기억과 감정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작가로서 그동안은 풍선 안 공기의 채움과 비움의 관점에서 시간을 주목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가 생명의 근원인 숨이 되는 것처럼, '숨'의 관점을 작품에 투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10년에 걸쳐 풍선 조형미술 분야 책을 출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공기 조각가라는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싶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펜 하나로 디즈니랜드를 만든 것처럼, 저는 풍선으로 고흥석의 풍선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어요.

**Q. <따뜻:한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현재를 충분히 즐기고 계신다면 미래 또한 현재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풍선은 무언가를 채우나에 따라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늘로 훨훨 날아가기도 합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를 희망합니다. 공기 조각가 고흥석의 창작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따뜻:한난  
독자여러분  
현재를 즐기세요. ^^

**쑥쑥 알아듣고  
척척 이해하고 싶어요  
문해력,  
이대로 괜찮을까**

‘중식 제공’이라고 적힌 가정통신문에 한 부모는 “우리 애는 중국 음식 싫어해요!”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치부해 버리기엔 씁쓸한 현실이다. 이렇게 글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많아진다면 오해하는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쑥쑥 알아듣고 척척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글 편집실

심심한 사과?  
십분 이해?  
사흘?

### 알 듯 말 듯 헷갈리는 문해력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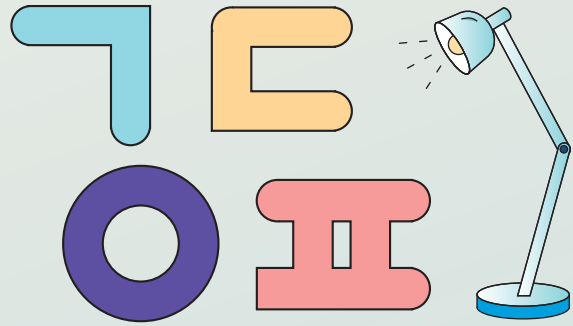
<b>금일</b> 금요일?	<b>유니섹스</b> 19금?	<b>심심한 사과</b> 심심하다고?
<b>십분 이해한다</b> 10분?	<b>갈무리</b> 갈대 무리?	<b>사흘</b> 4일?
<b>고지식</b> 높은 지식?	<b>이지적이다</b> 쉽다고?	<b>시장하다</b> 전통시장?
<b>을씨년스럽다</b> 욕?	<b>가제</b> 갑각류?	<b>무료하다</b> 유료 반대?

※위 단어들의 진짜 의미는 27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해력은 꼭 필요한 능력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글 읽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기도 한다. 이는 문해력이 부족해서인데, 글을 많이 읽지 않았거나 설명 읽었더라도 깊이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글을 접한 경험이 부족하면 알게 되는 어휘의 수도 적고, 어휘를 알더라도 글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점점 제목만 혹은 쉬운 내용만 찾게 되고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경제 동향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본다고 해도, 조상의 지혜를 알기 위해 고전을 찾아 읽는다고 해도 책 속의 정보는 당신의 것이 되기 어렵다. 결국 더 많은 정보와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문해력은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른들도 문해력이 낮아 소통이 안되는 일이 생기곤 한다. 누군가는 문해력 좀 떨어진다고 한들 문제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사는 데는 지장 없다. 다만 상대방이 하는 글이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로 인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더욱이 직장인은 중요한 문서를 이해하고 일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

먼저 문해력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자. 국립국어원은 문해력을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해석하는 힘, 나아가 문장 속에 숨어 있는 맥락을 찾아내고 내 글로 확장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해력이 높아질 수 있을까? 교보문고에서 출간한 <일머리 문해력>에서는 이렇게 방법을 소개한다.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라고 하지만, 이를 각각의 방법으로 인식해서는 문해력이 발달하지 않는다. 잘 읽어서 머릿속에 쌓은 지식이 생각의 재료가 되며, 생각의 재료는 글로 표현함으로써 더 발전한다. 배경이 되는 자료 없이 생각하는 것은 공상이고, 생각 없이 쓰는 것은 낙서일 뿐이다. 읽고 생각하고 쓰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비로소 문해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문해력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본질을 꿰뚫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하나의 방법이 아닌 여러 노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문해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도 당장 노력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묻는다면 어휘를 많이 아는 것이다. 글을 이해할 때도, 대화할 때도 아는 어휘가 많을수록 꺼내 쓸 수 있는 선택폭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문해력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 문해력이 높아질수록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갈 테니까 말이다. 📌

##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 당신의 문해력은?!

### 오늘

'금일'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 즉 오늘을 뜻한다. 한자어 날짜 표현은 햇갈리기 쉬워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자. 어제는 '작일'이고, 내일은 '명일'이며 '익일'은 특정한 어떤 날의 다음 날을 뜻한다.

### 남녀겸용

'유니섹스'는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등 여러 면에서 남성·여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60년대 미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 깊은 사과

심심한데 사과한다고? 심심하고 재미없는 사과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심하다'는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으로, 심심한 사과나 심심한 감사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충분히 이해한다

'십분 이해한다'라는 말을 10분 동안 이해한다고 오해한다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십분(十分)은 아주 충분히를 뜻하는 부사로, 너의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곤 한다.

###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

'갈무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물건을 잘 정리하거나 간수한다는 의미와 일을 처리하여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정보 통신 분야 용어로 자료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 3일

한때 '사흘'이라는 표현을 두고 3일이다 4일이다 논쟁이 벌어졌다. 사흘은 한자어가 아닌 날짜를 세는 순우리말이다. 이번엔 알아두자. 하루(1일), 이틀(2일), 사흘(3일), 나흘(4일), 다섯(5일), 엿새(6일), 이레(7일), 여드레(8일), 아흐레(9일), 열흘(10일).

### 앞뒤가 팍 막힌 성격

지식이 높다는 의미로 오해하는데 아니다. '고지식하다'는 성질이 대쪽 같아서 융통성이 없다는 의미다. 누군가에게 고지식하다고 표현했다면, 자기만의 철학이 확실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철학만 고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이성과 지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이지적이다'에서의 이지지는 영어 EASY가 아닌, 이성과 지혜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본능이나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지식과 윤리에 따라 사물을 분별하고 깨닫는 능력을 말한다.

### 배가 고프다

여기서 시장을 상품을 사고파는 시장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흔히 '시장하다'라고 할 때 시장은 배고프다는 뜻으로 흔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용한다. '어르신 시장하시죠?' 등이 그 예다.

### 날씨나 분위기가 쓸쓸하고 스산하다

욕으로 오해하곤 하는데,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쓸쓸하고 스산한 기운이 있다는 의미다. 유래는 을사년스럽다에서부터 비롯되었다.

### 임시 제목

'가제'하면 랍스터가 먼저 생각나는가? 가제는 거짓 가, 지을 제라는 한자를 써서 임시 제목이라는 뜻의 명사다. 주로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실제 제목을 짓기 전에 가제로 다른 제목을 지어둔다.

### 지루하다

'지루하다'를 무료로 한다, 무료로 제공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무료하다는 단어는 흥미 있는 일이 없어서 심심하고 지루하다는 뜻이다. 무료함을 달래다, 무료하게 휴일을 보내다 등의 표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삶이라는 밭에서 수확한다는 것

## 빈센트 반 고흐

지금 어디선가 홀로 낮을 들고  
 자신만의 밭을 묵묵히 베어가며  
 수확하고 있을 모든 사람에게  
 고흐의 <수확하는 사람>은  
 굳건한 이정표가 되어준다.  
 언젠가 끝나지 않을 추수도 가을이  
 가기 전 마무리가 되듯 말이다.  
 찾아지지 않는 길도,  
 이를 수 없을 것 같은 목표도  
 꾸준히 행동한다면  
 한 계절이 지나고 원하는 것을  
 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그 희망이 오늘을 살게 한다.  
 글 이소영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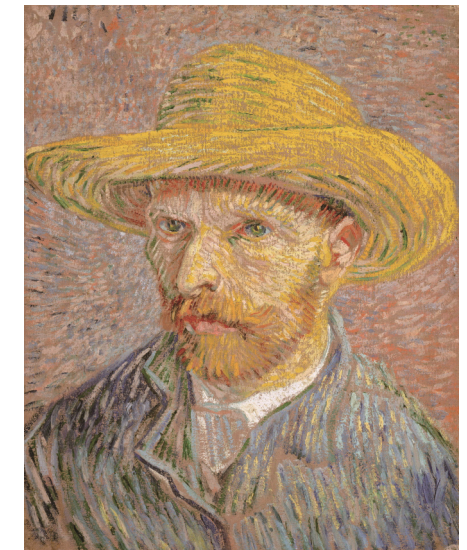
<수확하는 사람>

한 남자가 드넓은 황금 들판에서 오직 낮만을 들고 밭을 수확하고 있다. 과연 이 넓은 밭밭에서 홀로 일하는 그는 언제쯤 수확을 마칠 수 있을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다. 그와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가 끝끝내 성공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아니 기필코 성공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삶에 있어 무엇인가를 수확하고 싶은 나의 욕구가 이 작품에 투영된 걸지도 모르겠다.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죽기 1년 전 남긴 작품으로 고흐가 좋아했던 노랑, 황색, 금빛, 갈색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하단에는 주인공인 남자가 이미 수확을 진행한 벚짐들이 보이고 오른쪽 모든 공간은 앞으로 남자가 해야 할 몫이 그의 시간과 공간을 온통 뒤

**이소영 미술 에세이스트**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조이뮤지엄 대표.  
 <그림은 위로다>, <미술에게 말을 걸다>,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  
 <칼 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 등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고흐는 이 정신병원에 머문 1년 남짓이라는 시간 동안  
 밀밭 풍경화를 열 점 넘게 완성했다. 그래서 비슷한 구도와 주제의 작품이 있는 것이다.  
 고흐는 늘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로 연작하는 것을 즐겼다.  
 그리고 모순되게도 이 밀밭에서 자신의 삶을 종료하기 위한 권총을 겨눈다.”

뒀고 있다. 당시 고흐는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실 철창을 통해 바라본 풍경을 주로 그렸다. 고흐는 1889년 7월에 작업을 시작했으나 의도치 않게 자주 찾아오는 발작으로 작업을 중단하다가 재개했다. 고흐는 이 정신병원에 머문 1년 남짓이라는 시간 동안 밀밭 풍경화를 열 점 넘게 완성했다. 그래서 비슷한 구도와 주제의 작품이 있는 것이다. 고흐는 늘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로 연작하는 것을 즐겼다. 그리고 모순되게도 이 밀밭에서 자신의 삶을 종료하기 위한 권총을 겨눈다.  
 가을이 오고 논밭이 금빛으로 물들면 우리는 늘 그 풍경을 향해 ‘풍요롭다’고 이야기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색채심리학에서 황갈색은 대지의 온기와 생명력, 나아가 생산력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땅이 지닌 색에서 모성적 힘을 느끼기에 고흐의 작품 속 황갈색을 보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였다’라는 피곤한 느낌보다 ‘건강하고 생산성 있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고흐는 스스로 귀를 자르는 기행을 보여주기도 했고, 말년에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자기 자신의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서 지내기도 했다. 반면 모두가 고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그에게는 감정보다는 이성, 능력보다는 성실함이 꽤 많은 삶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고흐가 그린 <수확하는 사람>은 고흐가 스스로를 응원하기 위해 그린 작품일지 모른다. 삶에서 한 번도 미술적으로 성공을 제대로 수확해 보지 못한 사람 역시 빈센트 반 고흐였으니 말이다. 그는 매일 드넓은 미술계에 홀로 서서 버를 베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도 그럴 것이 고흐는 이 시리즈를 그리면서 동생 테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



<밀짚모자를 쓴 자화상>

“뜨거운 태양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려 악마처럼 싸우는 희미한 이 형체, 바로 <수확하는 사람>에서 나는 죽음의 이미지를 본단다. 그가 수확 중인 밀이 인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내가 일전에 그렸던 <씨 뿌리는 사람>과 정반대에 위치한 작품인 셈이지. 하지만 이 죽음에는 슬픈 구석이 하나도 없단다. 한낮의 햇살이 넓게 퍼져 순수한 황금빛 햇살이 모든 것에 넘쳐흐르는 가운데의 죽음이니까.”

**<반 고흐, 프로방스에서 보낸 편지> 194p**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려는 악마처럼 싸운다’는 표현을 통해 나는 고흐의 삶이 많은 사람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흐는 가난했고, 생전에 그림을 많이 팔지도 못했고, 친구도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밀밭에서 우직하게 예술적 길을 향해 나아갔다. 그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였다. 그 결과 시간이 흘러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미학적 수확을 일궈냈다. 물론 생전에 알려졌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

쌀쌀해진 날씨엔?

꽃게 어묵탕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꽃게. 게다가 꽃게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다. 또한 소화성이 좋아 환자나 허약 체질, 노약자에게도 좋다. 이런 꽃게가 제철을 맞았다. 날씨도 쌀쌀해졌으니, 꽃게에 어묵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 먹어 볼까. 가을 밥상엔 이만한 보약도 없을 터이니.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푸드 스타일링 박정윤, 조현영(노하우스 스튜디오 knowhow's studio)



재료 및 용량
어묵 꼬치 판 어묵 4장, 꼬챙이 4개, 기타 어묵 한 줌
꽃게 육수 꽃게 2마리, 무 1토막, 대파 1대, 양파 1개, 생강 1톨, 통마늘 7~8개, 페페론치노 4~5개, 숙갓 한 줌, 물 2L
어묵탕 양념 어간장 3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레시피

- 1 재료를 준비한다.
2 어묵을 끓는 물에 데쳐낸 후 3단으로 접어 물결 모양으로 꼬챙이에 끼운다.
3 흐르는 물에서 술을 이용해 꽃게의 등껍질과 다리를 문질러 세척해 준비한다.
4 양파, 대파, 무는 크게 썰어 냄비에 물과 함께 통마늘, 생강, 페페론치노를 같이 넣고 끓인다.
5 4의 냄비가 끓기 시작하면 꽃게를 넣고 20분간 끓인 후 통마늘, 생강, 양파, 대파는 건져둔다.
6 5의 육수 냄비에 어묵 꼬치와 기타 어묵 한 줌을 냄비에 담고, 어간장 3큰술과 다진 마늘 1/2 큰술을 넣어 끓이다 숙갓을 얹어 완성한다.

Cooking tip

어묵을 더욱 맛있게 즐기려면 생와사비를 이용해 간장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알싸한 맛이 풍미를 더합니다. 꽃게탕 국물에는 어간장 말고 국간장이나 참치액을 쓰셔도 좋습니다. 🍡







바다에 떠 있는  
‘지붕 없는 미술관’ —— 고흥 연흥도

고흥 연흥도는 거금도에 딸린 손바닥만 한 섬이다.  
크기는 작지만, 전남의 수많은 섬 중에서 당당하게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다.  
연흥도는 ‘예술의 섬’이란 주제로 섬 전체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꾸몄다.  
폐교를 리모델링한 아담한 미술관을 둘러보고, 호젓한 섬 둘레길을 걸으며 연흥도의 가을을 만끽해 보자.  
글·사진 진우석 여행작가

섬 전체를 미술관으로 꾸민 ‘가고 싶은 섬’

연흥도 가는 길은 섬을 징검다리처럼 밟고 간다. 고흥 녹동항에서 소록대교를 건너 소록도, 다시 소록도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거금대교를 지나야 거금도 신앙선착장에 닿는다. 신앙선착장에서 연흥도는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섬나라 미술여행’이라고 쓰인 알록달록한 여객선을 타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연흥도로 가는 맛이 일품이다.

연흥도의 생김새는 중앙에 자리한 연흥마을을 중심으로 양 날개가 뻗어나간 듯하다. 섬 뒤로 금당도의 바위산이 마치 연흥도를 수호하는 장군처럼 우뚝하다. 섬 이름은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연(鰲)과 같다 해서 연흥도(鰲洪島)라고 불렀으나, 일제강점기에 거금도와 맥이 이어졌다 하여 ‘연(鰲) 자를 이을 ‘연(連)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섬의 지형이 말 형상이라 마도(馬島)라 불렀다는 설도 전해진다.

여객선은 불과 10분도 안 돼 연흥도에 닿았다. 섬에 내리면 방조제 끝에 설치된 소라 모양의 조각품이 인사를 건넨다. 두 개의 소라가 사이좋게 있어 ‘소라부부’라고 불린다. 선착장 길은 마을 골목으로 이어진다. 골목 담벼락에는 정다운 벽화들이 가득하다. 섬 전체가 미술관이란 말이 실감 났다.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레슬러 김일의 벽화에서 발걸음이 멈춰진다. 프로레슬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일의 고향이 고흥 거금도다. 김일 옆에는 노지심과 백종호 레슬러의 사진도 있다. 두 사람 모두 김일의 제자인데, 백종호 레슬러가 연흥도 출신으로 영화 <반칙왕>의 모델이다. 실제로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레슬러로 활동했다고 한다.

골목길 미술관과 연흥미술관

‘연흥 사진박물관’이란 이름을 단 벽면에는 연흥도 주민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들어있다. 순박한 섬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1 연흥미술관 앞의 조형물. 예술 작품과 바다와 금당도 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2 고흥 출신 프로레슬러 김일과 제자인 백종호 씨 등이 있는 담벼락  
3 연흥도 주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연흥 사진박물관





정경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벽화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 소재는 생활폐기물, 조개껍데기, 나무, 돌 등 구하기 쉬운 것들이다. 작품들은 화가들뿐 아니라 주민들도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발걸음은 마을 뒤편으로 이어지고, 언덕에서 시원하게 조망이 열린다. 한쪽으로 부드럽고 웅장한 산을 품은 거금도가 보이고, 반대쪽으로는 가파른 바위산이 우뚝한 금당도가 있다. 금당도는 고흥이 아닌 완도에 속한다. 언덕길은 연흥미술관으로 부드럽게 이어진다.

연흥미술관은 연흥도에서 가장 멋진 장소에 자리 잡았다. 서쪽으로 해안을 끼고 있으며, 건너편 금당도를 바라본다. 미술관은 연흥도 출신인 김정만 화백이 폐교하고 8년 동안 방치된 연흥분교를 정성껏 리모델링해 2006년 개관했다. 지금은 선호남 관장이 관리한다. 전시실에서는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회화작품 150여 점을 전시한다. 작품은 전시실뿐만 아니라 작은 운동장이었던 미술관 정원과 해안에 흩어져 있다.

### 연흥도 ECO 체험



#### 연흥마을 소 쟁기질 관찰

연흥도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과 농업을 병행한다. 연흥마을 일대의 낮은 구릉지대에 밭이 많다. 주민들은 농기계를 쓰지 않는다. 대신 소를 이용해 밭을 경작해 보리, 콩, 녹두, 양파, 마늘 등을 생산한다고 한다. 운이 좋으면 길에서 소 쟁기질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감상할 수 있다.

- 4 섬의 오래된 폐교를 소박한 연흥미술관으로 리모델링했다.
- 5 미술관 앞 바다에 반쯤 잠겨 유행하는 물고기 작품
- 6 아르골로 가는 호젓한 후박나무 숲길

연흥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들은 미술관 앞 해안에 자리한다. 잔잔한 바다에는 은빛 물고기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반쯤 물에 잠겨 있다. 마치 느릿느릿 헤엄치는 것 같다. 물고기 등에 올라타고 싶은 마음을 꼭 참았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굴렁쇠 굴리고,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여러 작품은 바다와 건너편 금당도가 어우러진다. 가히 자연과 예술의 조화로 연흥도에서만 볼 수 있는 걸작이다.

#### 좀바골과 아르골 돌레길

연흥도에는 두 개의 돌레길이 있다. 하나는 연흥미술관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좀바골 돌레길, 다른 하나는 섬 남쪽의 야산을 한 바퀴 도는 아르골 돌레길이다. 돌레길에 붙은 이름이 소박하고 예쁘다. 아르골은 '아래의 골'이란 뜻이고, 좀바는 사납게 생긴 생선인 썸뱅이의 연흥도 사투리다. 먼저 좀바골로 향한다. 연흥도는 하늘에서 보면 섬 생김새가 'ㄱ' 모양이다. 'ㄱ'자의 맨 왼쪽에 좀바골이 있다.

길은 소나무가 우거진 호젓한 숲길이다. 부드럽게 이어지다가 언덕으로 올라선다. 언덕에는 2층 해안 전망대가 놓여있다. 전망대에 오르자 연흥미술관 일대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건너편의 금당도가 거센 물살을 막아준 덕분에 연흥도 앞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다.

다시 미술관으로 돌아와 섬 남쪽 아르골로 향한다. 마을 골목을 벗어나면 후박나무가 가득한 숲길이 이어진다. 길이 험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어느 순간 연흥도 최남단 아르골을 지나쳤다. 길은 연흥마을이 잘 보이는 언덕으로 이어진다. 전망 좋은 벤치는 쉬어가기 좋다. 넓게 열린 하늘이 눈에 들어온다.

가을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이 있다. 울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무더웠다. 그러나 날씨는 절기를 거스를 수 없는 법. 시나브로 높고 청명한 푸른 하늘이 내려오는 중이다. 가을 하늘 우러리며 한가롭게 쉬다 보면, 작고 아담한 섬이 주는 평화로움이 마음에 가득 찬다.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이제 떠날 시간이다. 신양선착장에서 출발한 배가 경적을 울리며 연흥도로 들어온다. 🍁



### 연흥도 가이드

연흥도는 섬 전체가 미술관이다. 골목길, 연흥미술관 앞이 예술 작품으로 가득하다. 예술 작품과 섬 풍경이 어우러진 모습이 걸작이다. 두 개의 돌레길은 넉넉하게 2시간쯤 걸린다. 연흥도 관광안내(061-842-0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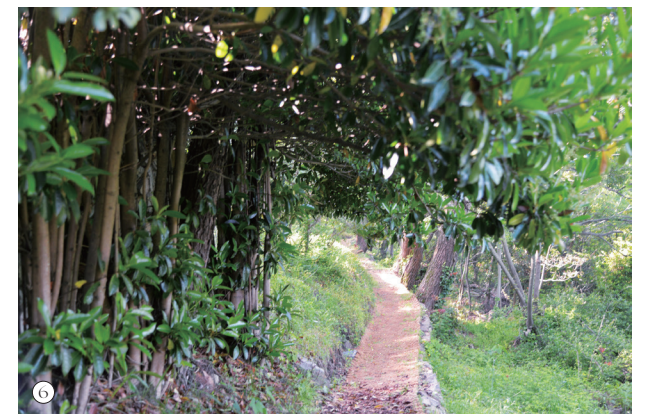
#### 교통

신양선착장에서 연흥도 가는 배가 1일 7~8회 다닌다. 대중교통으로 연흥도에 가려면, 녹동항에서 신양선착장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 맛집과 숙소

연흥도는 워낙 작은 섬이라 식당이 없고, 숙소도 마땅찮다. 녹동항을 베이스캠프로 삼는 게 좋다. 녹동항 녹동회타운은 싱싱한 회와 낙지 등을 먹을 수 있다. 뚝배기식당의 해물된장뚝배기가 일품이다. 숙소는 거금아일랜드펜션, 소풍무인텔이 깔끔하다.





## 다큐멘터리 <대지에 입맞춤을> 땅과 함께 만드는 돌봄의 선순환

자연과 인간 생활의 기반, 먹거리를 길러 내는 필수 요소,  
기후 순환의 핵심 축.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땅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다큐멘터리 <대지에 입맞춤을>은 땅과 인간이 서로를 돌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글 강진우 문화칼럼니스트 사진 넷플릭스 <대지에 입맞춤을>

###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건강한 땅

기후위기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홍수·가뭄·산불·태풍·폭염·혹한과 같은 자연재해가 시시각각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1조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 이로 인해 대기의 복사에너지 흡수율이 높아져 지구가 달궈지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부랴부랴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로 했으며,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야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일 뿐, 지금까지 배출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저감하겠다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탄소 배출량과 함께 이미 배출된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온난화는 최소 수십 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지구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것이다.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큐멘터리 <대지에 입맞춤을>은 '건강한 땅'에 답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땅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다. 식물이 자라나고 그 아래 온갖 미생물이 섞여 사는, 자연 그대로의 대지가 바로 건강한 땅이다. 식물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다. 그리고 탄소는 뿌리 쪽으로 보

내는데, 토양 속 미생물은 이 탄소를 에너지 삼아 살아가며, 그 대가로 식물에게 무기 영양소를 공급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소는 자연스럽게 땅속에 저장된다. 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탄소 저장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 건강한 땅을 만들기 위한 노력

안타까운 점은 건강한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넓은 들판을 빠르게 갈고, 한 종의 곡물을 심어 화학 비료와 농약을 치고, 시기에 맞춰 한 번에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산업형 농업 현장의 땅은 척박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푸석푸석하다. 제초제에 내성이 생긴 몇몇 풀들만이 자랄 뿐이다. 이런 땅에서 다음 농사를 지어야 하다 보니, 농부들은 점점 더 많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다. 그럴수록 땅의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비료와 농약 속 안 좋은 성분들은 지하수에 녹아 다시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 이런 땅은 탄소를 머금지도 못한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데다가 탄소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토양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됐기 때문이다.

<대지에 입맞춤을>은 땅을 갈지 않고, 여러 종의 농작물을 함께 기르며, 수확 후 기축을 풀어 키우는, 다시 말해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따르는 재생 농업으로 건강한 땅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혹자는 경제성을 걱정하지만, 사시사철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재생 농업이 산업형 농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이 다큐멘터리의 설명이다.

건강한 땅이 늘어나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위협성은 자연스럽게 하강곡선으로 돌아서게 된다. 땅이 그 자체

로 탄소 저장고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 내뿜었던 이산화탄소도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지의 입맞춤을>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힘을 모아 재생 농업을 실천하면 상층 대기 중의 탄소량이 줄어드는 드로다운(Drawdown)이 이뤄지며, 이후 20년 이내에 지구가 건강한 온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큐멘터리의 말미, 이런 내레이션이 나온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면, 그들도 우리를 돌볼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낙원을 조금씩 복원해 갑시다." 이 목소리가 설레는 희망으로 느껴진다면, 이제 지구와 인류의 상생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발길을 들여다보자. 땅이 건강해지면 우리도 건강해진다. 🌱



# 이 달달함에 치인다치여!



분당사업소 열수송1부  
권용현 대리

용인지사 안전관리관  
김지형 대리

누군가가 그랬다. '달콤한 건 언제나 옳다'라고. 기분이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면 뭔가 충전이 되는 기분이 든다. 눈으로 봐도 예쁘고, 코로 맡으면 기분 좋고,  
입으로 먹으면 황홀경에 빠지는 마성의 디저트, 쿠키&보틀 케이크의 세계에 권용현, 김지형 대리가 초대되었다.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 두 남자의 색다른 도전!

맛있는 디저트를 마음껏 먹고 싶어서 취미로 베이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실 굳이 먹지 않아도 특유의 달콤한 냄새 때문에 만들고 있으면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고.

기분 좋은 달콤함에 취하고 싶어 권용현, 김지형 대리가 베이킹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둘 다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술 마실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편이긴 합니다. 평소 김지형 대리가 사보 참여 게시가 올라오면 매의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베이킹 체험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편한 김지형 대리 와 함께라면 어색함 없이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권용현 대리가 체험에 응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기자기하고 꾸미는 게 관건인 베이킹 체험에 남자 둘이라... 의외의 조합에 클래스 진행하는 강사도, 취재진도 의아해 했던 것도 사실. 하지만 김지형 대리의 말을 듣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에그타르트를 좋아해서 기회가 있다면 베이킹 체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손재주는 없지만 뭔가 도전해 보는 원데이 클래스도 좋아하고요. 마침 선배님도 빵을 좋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남 녀가 무슨 상관인가! 달콤함을 즐길 준비만 되어있다면, 베이킹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 내가 만든 쿠키~♪

"먼저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라는 강사의 말에 긴장하는 두 사람. "막상 시작하러니 긴장되네요. 예전에 떡케이크는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야겠어요." 권용현 대리의 말에 김지형 대리도 공감하며 반죽을 하고 모양 잡기에 돌입했다.

"50g을 맞춰야 된다고 하셔서 꼭 맞추고 싶은데, 잘 안 맞춰지네요"라는 김지형 대리는 반죽을 싹싹 긁어 다시 50g 맞추기에 도전해 본다. 승부욕이 생기는 모양이다. 반면, 권용



현 대리는 스푼으로 반죽을 뜨는 것조차 아직 손에 익지 않은 눈치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웃음기는 싹 빼고 진지하게 반죽 만들기에 몰두한 결과, 그럴싸한 아이스크림 모양의 반죽 만들기 미션을 완료했다. 이제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보틀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다. 보틀 케이크는 유리나 플라스틱 보틀 안에 재료들을 쌓아 모양을 내는 케이크다. 모양 그대로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되고, 일반 케이크보다 쉬워서 베이킹 클래스 아이템으로 많이 도전한다고. 게다가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어 간편하다.

#### 보틀 케이크, 이거 꽤 재밌잖아!

방법은 간단하다. 준비된 시트를 넣고, 과일을 올리고, 크림을 채우고! 이 세 가지를 보틀 크기에 맞게 반복하면 된다. “순서도, 과일 꾸미는 것도 자유롭게 하면 돼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라는 강사의 말에 권용현 대리는 “선생님을 따라 하지 않으면 감이 안 잡혀요”라며 너스레를 떠다. “그럼 저를 따라 해볼

서로 가장 좋아하는 과일들을 마음껏 넣고, 크림을 짜면서 보틀 케이크를 똑딱 완성했다. “오~ 이거 재밌는데요!” 맘에 드는지 두 사람은 한동안 보틀 케이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까요?” 강사가 시범을 보이자, 손에 익었는지 성큼성큼 진도를 나간다. “저는 크림이 잘 안 짜져요 왜 그럴까요?”라는 김지형 대리의 말에 강사가 팁을 전한다. “공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공기를 빼고 다시 도전하는 김지형 대리. “잘 되네요.” 처음의 헤매던 모습과 달리 두 사람은 어느새 두 번째 보틀 케이크 만들기에 나선다. 마치 프로처럼. 샤인머스켓, 무화과, 복숭아... 서로 가장 좋아하는 과일들을 마음껏 넣고, 크림을 짜면서 보틀 케이크를 똑딱 완성했다. “오~ 이거 재밌는데요!” 첫 번째 완성품이 맘에 드는지 두 사람은 한동안 보틀 케이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 꾸미기와 포장까지 완벽하게!

이제 다시 쿠키를 만들 차례다. 숙성된 반죽에 마시멜로를 넣고 쿠키를 빚는 과정. 쿠키야 말로 모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한 두 사람은 다시 진지해졌다.

“만두 빚듯이, 마시멜로가 보이게...” 강사의 팁을 주문처럼 읊조리며 반죽 빚기에 힘을 쏟는다. 그리고 오븐에 들어가는 쿠키를 보며 “예쁘게 구워졌으면 좋겠네요”라고 간절하게 말했다. 10여 분의 시간이 지난 뒤, 쿠키가 맛있게 구워졌다. 캔디, 오레오, 코코아 파우더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꾸미면 더 예쁜 쿠키가 완성된다는 말에 마지막 힘을 다해 꾸미기에 몰두한다.

“너무 큰가?”, “예쁘네요!”라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쿠키 포장을 끝으로 체험을 마무리했다. 고생했다며, 다음에도 함께하자는 약속과 함께.

열수송처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 쪽 이어지는 걸 보면, 두 사람의 인연은 서로 다른 곳에 있더라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직장 생활의 희로애락을 나누며, 때로는 취미를 함께 나누며, 지금처럼 서로에게 편하고, 든든한 선후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



#### Review - Talk



#### Q. 베이킹 체험 중 가장 재밌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용현** 저는 과일로 케이크 꾸미는 게 재밌더라고요. 선생님 칭찬도 듣고 좋았습니다.

**지형** 케이크 꾸미는 게 어려웠어요. 쿠키 만드는 게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 Q. 만든 보틀 케이크와 쿠키는 누구와 나눠 먹을 생각인가요?

**용현** 아내를 주려고요. 달콤한 걸 좋아하거든요. 좋아할 아내 생각에 뿌듯합니다.

**지형** 저는 본가가 세종인데, 주말에 가족들과 나눠 먹을 계획이에요.

#### Q.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서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용현** 요즘 많이 말랐는데, 쿠키 많이 먹고 체지방 늘리세요~!

**지형** 다음에도 함께 하시죠! 스포츠 쪽으로 해보면 좋겠네요.

판교지사 운영부  
정소윤 주임

강남지사 운영1부  
양상문 주임

수원사업소 운영부  
이서현 주임

고양사업소 공무부  
유영찬 주임

우리 젊은 날의 숲에서  
“같이 걸을까?”

가을이 깃든 산중 캠핑장에 19사번 동기들의 '신바람'이 분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시답찮은 농을 나누며 걷는 별것 아닌 여정이 더없이 행복해 보여, 덩달아 친구가 보고 싶어졌다.  
글 윤진아 사진 정우철

### #나의 눈부신 친구 #한난스

경기도 포천 산자락의 카라반 캠핑장에 '한난스'가 떴다. 만 스물한 살 동갑내기인 네 친구는 19사번 동기를 중에서도 특히 끈끈한 사이. 2019년 7월 31일 입사했으니 어느덧 4년이 흘렀다. "지금은 판교·강남·고양·수원으로 흩어져 근무하고 있어요. 다른 지사는 어떻게 궁금할 때가 많은데, 동기들과 소통하며 회사 전체 업무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게 됐죠. 앞으로 약 40년은 더 함께할 사이라서 이 기회에 모임 이름도 만들어봤습니다(웃음). 요즘 '뉴진스'가 핫하던데, 우리도 한난 내 귀여움과 해피 바이러스를 말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한난스'라고 우겨보려고요. 하하!"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어느 해 가을 함께 걸던 출근길이 생각나고, 두근거리던 첫 다짐도 떠오른다. 2020년 겨울 양상문 주임이 입대하던 날엔 다 같이 스키장으로 떠나 초코파이 대신 오예스로 '마지막 사제 케이크' 이벤트도 펼쳤다. 그때 한 명도 차가 없어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녔는데, 어느덧 모두 각자의 차가 생기고 어디든 제약 없이 놀러 다니는 어른이 됐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양상문·이서현·정소윤 주임은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삶의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공부하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정적으로 만나며 절로 돈독해졌다고. 평소 체력만큼은 자부했지만 한 학기 동안 현업에 학업까지 강행군을 이어가며 컨디션이 바닥을 쳤단다. 이번 여행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돌아가 회사도 학교도 더 건강하게 다녀보자는 약속에 힘이 실렸다.

### #직대딩 #회사사람에서 친구로

산 좋고 물 좋은 포천에서의 하루는 심심할 틈이 없다. 트램펄린, 봉봉카 등등 취향저격 캠핑장 액티비티부터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다. 수원사업소 운영3과에서 BCO 보직을 맡고 있는 이서현 주임은 친구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회사에 들어와 얻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동기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부친상이 있었어요. 주변에 많이 알려지 못했는데, 그때만 해도 별 교류 없이 지내던 동기들이 와줘 큰 힘이 됐어요.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이 주는 위로의 힘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저 '회사 사람'이라 여겼던 이들이 성큼 '친구'로 다가왔죠."

양상문 주임과 이서현 주임은 무려 고등학교·회사·대학교 동기라는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새록새록 고맙다는 이서현 주임의 고백은 이심전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하다. 고양사업소 공무부 제어팀에서 근무 중인 유연찬 주임은 동기 사이에서 '엄청난 E 녀석'으로 통한다. "연수원에서 제일 처음 본 친구는 소윤이었어요. 같은 전자 직렬이어서



“입사동기인 너희들과 친구가 된 건 큰 축복인 것 같아. 밤낮으로 성장하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투닥거리도 우리 같은 목표를 가지고 힘내서 나아가보자. 파이팅!”



대화가 이어졌는데, 똑 부러지는 친구라는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오. 서현이는 산책하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보다 활달한 사람은 처음 봤죠 (웃음). 상문이는 강남지사에 있을 때 유일한 동기로 의지가 많이 됐던 친구예요. 연수원 시절부터 쪽 친했던 친구들이지만 함께할 시간이 적어 아쉬웠는데, 모처럼의 여행에 며칠 전부터 설레더라고요." 이서현 주임은 유연찬 주임을 '먼저 말 걸어주며 다가와준 고마운 친구'로 기억한다. "올 초 일근 부서로 파견 갔을 때도 영찬이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일근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 익숙지 않아 막막했거든요. 올해부터 일근으로 일하던 영찬이가 본인도 바쁠 텐데 물어볼 때마다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메신저로 원격 해결사까지 되어줘 든든했죠."

### #벌써 4주년 #40년 뒤에도 우리

'무계획 무맥락 여행'을 표방한다더니, 탁 트인 잔디광장에서 이유 없이 뛰어다니다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느닷없는 물수제비 레이스도 펼친다. 이어진 트램펄린 점프 대결에서 독보적인 기립 기술을 선보인 정소윤 주임은 판교지사에서 열병합발전소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늘 앞장서서 수고로운 일들을 도맡아주는 상문이, 동기들의 일이라면 계산 없이 달려와주는 서현이, '파워 E'답게 워낙 친구가 많은데도 깊은 우정을 나눌 줄 아는 영찬이와의 여행이라 그런지 힘이 샘솟네요. 고충을 나눌 때나 조언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동기들이예요. 연계시스템 특성상 열에너지를 인근 지사와 주고받는 일이 잦는데, 근무일이 같으면 업무전화를 직접 주고받는 경우도 종종 있죠. 전화기 너머로 동기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정소윤 주임의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인 양상문 주임은 강남지사에서 수서열원 로컬근무를 맡고 있다. "제가 있는 수서열원과 소윤이가 있는 판교열원은 연계 배관으로 연결돼있어 종종 연계운전을 해요. 수서에서 판교의 상황을 아는 데 한계가 있어 늘 궁금한 점이 많았죠. 소윤이와 설비 시스템·상황을 공유하고 궁금한 건 물어보면서 열원 운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사는 내내 두고두고 힘이 될 추억을 오늘도 알차게 만든다. 산을 병풍처럼 두른 캠핑장 선베드에 누워 잠시 숨을 고른 친구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본격적인 여행지 탐방을 예고했다. 숨 막히는 속도전 속에 찬찬히 나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들은 절로 걸음이 느려지는 산책로에서 삶의 작은 심포 하나를 찍는 중이다. 내 걸의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아니, 지쳐도 금세 회복하는 재능이 축복처럼 생겨났다. "잘하고 있어!" 도닥이며 보폭을 맞춰 길을 나서는 발걸음이 더없이 가벼워 보였다. 🍒



### 포천의 또 다른 매력 즐기기



**백운계곡**  
백운산 정상에서 흘러내린 물과 광덕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10km에 걸쳐 발달한 계곡이다. 선유담·광암정·학소대·금병암·옥류대·취선대·금광폭포 등의 명소가 있다.  
**주소**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정호수**  
'산정'은 산속 우물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주변 풍광이 수려하고 물도 맑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맞닿은 명성산도 가을이면 경이로운 자연의 성찬을 차려놓고 여행자를 기다린다.  
**주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411번길 108

# 언어의 온도



듣는 서점은 한남 직원이 직접 책을 읽어주는 코너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따뜻·한남> 웹진에서 유동관 대리가 읽어주는 <언어의 온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Audio

Book

말과 글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살면서 말과 글의 온도를 느껴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던진 말에 냉기를 느꼈다가도, 또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글을 본 후에 마음이 괜찮아졌던 경험 말이죠. 여러 이슈로 시끄러워지는 시대를 사는 요즘,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라며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글 편집실 녹음 유동관 대리 사진 정우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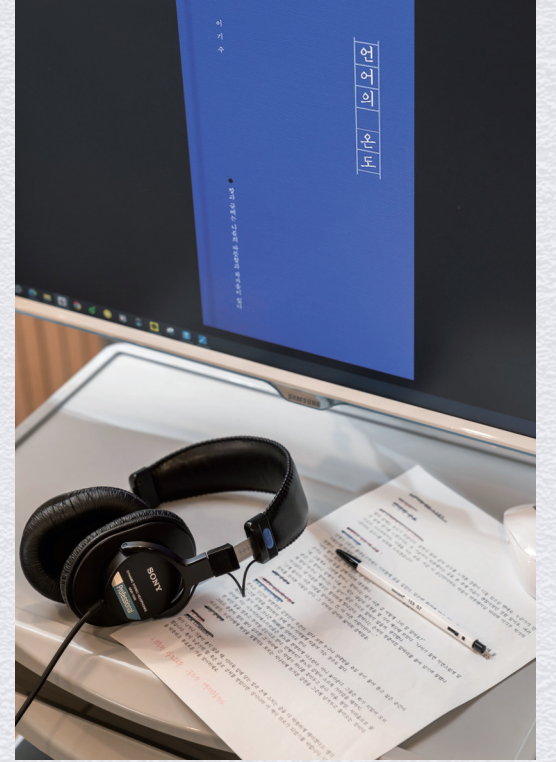
## 더 아픈 사람

언젠가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깜빡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렇게요. 그런데 할머니.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험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라...”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18p 중에서



## Book Comment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더더욱 입에 담은 말과 손에 스치는 글을 더 따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 혹은 글로 상처를 받았다면, 잠시나마 이 책이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들 따뜻하고 풍요로운 가을 맞이하세요. 🍂



## 분노를 대하든 방관

분노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지 모른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대방을 죽일 듯이 물어 뜯고 싶은 순간이 있고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경우도 많다. 화(火)를 참지 못해 크나큰 화(禍)를 당하기도 한다. 극지에 사는 이누이트(에스키모)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린다. 아니 놓아준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분노의 감정이 스프륵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꽂아두고 온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얼고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것이다. 231p 중에서





청주시사&청주개신주공3단지 그린빌아파트

# 동반 상생의 품격, 주거의 질을 높이다

안식과 휴식이라는 집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생 행보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사는 청주개신주공3단지 그린빌아파트와 함께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손발을 맞춰왔다.

안정적인 열공급으로 주거의 질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행복을 지키는 이들을 만났다.

글 김주희 사진 정우철



세대 수

6개 동  
634세대



입주 연도

2003년  
7월



열 사용량 2022년 1월~12월

4,693.1 Gcal



열교환기 용량

5,347 Mcal/hr  
난방 4기, 급탕 12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사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위치한 청주개신주공3단지 그린빌아파트는 2003년 첫 입주를 시작했다.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그린빌이라는 이름답게 뒤로는 장구봉공원이 자리하고, 앞으로는 가경천이 흐르는 자연에 둘러싸여 있다. 단지 내 대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향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빼곡하고, 중앙 테마 도로와 화단에는 다채로운 꽃이 피어 있어 마치 숲속의 정원 같은 안락하고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청주개신주공3단지 그린빌아파트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초록마을사업'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초록마을사업이란, 공동주택이나 도시·농촌마을이 온실가스 줄이기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최상희 관리사무소장은 주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초록마을을 일구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함께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중립 실천하기, 환경보호하기, 공동체 활성화를 실천합니다.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초록마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과 행정안전부 지정 '우리 동네 충북그린리더'에 선정되었습니다. 초록마을사업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며 다른 지역 공동주택이나 기관에서도 우리 아파트를 찾아 둘러보기도 하는데요. 관리사무소의 노력을 넘어 주민들과 함께 만든 성과이기에 한층 의미가 깊습니다."

2018년에는 자체적으로 초록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도서관, 경로당, 관리사무소 그리고 입주민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크고 작은 프로그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경로잔치, 효도관광, 윗놀이, 바둑대회 등을 지원하며 입주민들 간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입주민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입주민들의 사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중재하거나 주민들의 작은 의견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등 입주민을 위한 공동체를 실현 중이다.

지민구 설비과장은 관리사무소 활동의 핵심 요소로 '신뢰'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우리 아파트의 모든 활동과 업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 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소통과 공감을 한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시사와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결속력 있는 협업과 소통**

청주개신주공3단지 그린빌아파트는 2003년 준공될 당시부터 청주시사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난방과 급탕 공급을 원활히 진행 중이다. 매년 1, 2기계실의 난방 설비와 급탕 설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부품 교체 및 보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고 나아갈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에 한결 마음이 놓이고 늘 든든합니다!”**

청주개신주공3단지 그린빌아파트



입주민 대상 난방 안내 등을 함께한다. 설비 관리를 담당하는 지민구 설비과장과 김성호 시설주임은 청주시사 운영부 고객기술과와 호흡을 맞추며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설비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열교환기 1, 2차 혼수, 차압유량조절밸브의 이상, TCV밸브 오작동, 열량계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도 청주시사에서 발 빠르게 방문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열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오랜 시간 합을 맞춘 파트너십이 발휘되고 있지요."

청주시사는 현재 206개소의 고객사를 관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주개신주공3단지 그린빌아파트는 시설과 설비를 우수하게 관리하는 대표 고객사로 손꼽힌다. 현장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2017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주시사 유석균 과장은 관리 인력에 굳건한 신뢰를 보낸다.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과 노하우, 기술 역량으로 기계실을 철저히 관리해 주는 덕분에 난방 관련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 사이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열량계 점검 등을 세밀하게 진행하며 이상이

발생할 시 문제가 확대가 되지 않게끔 노력합니다."

청주시사는 기술 지원 외에도 열사용시설 운영 실무 및 A/S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다. 청주시사 운영부 김동호 과장은 관리사무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칭찬했다.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밝고 친절하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견고한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주시사와 청주개신주공3단지 그린빌아파트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가깝다며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했다. 안정적인 열공급으로 지역난방의 품질을 높이는 이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과 시설 관리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문제없이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주시사 운영부



왼쪽부터 김성호 시설주임, 김동호 과장, 유석균 과장, 지민구 설비과장, 최상희 소장

# KDHC NEWS

## 01

### 2023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 성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후원하는 기부 마라톤 대회 '2023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서울 상암동 평화의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굿피플 김천수 회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송현규 부사장, 앰배서더 가수 선, 가수 홍진영, 굿피플 나눔대사인 치어리더 안지현 및 일반인 러너 3,000여 명이 참석했다.

굿피플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함께 준비한 '2023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돕기 위한 기부 마라톤 대회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맞아 전면 오프라인 대회로 개최됐다. 서울 상암동 평화의광장에 모인 3,000여 명의 참가자는 수해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함께 달렸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은 "이번 마라톤 행사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힘을 얻기를 바란다"며 "우리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지속해서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 02

### 한국지역난방공사, 성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1천만 원 전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발적 봉사단체인 '본사 행복나눔단'은 지난 9월 16일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출산 예정 다문화 가정의 출산·육아 교육과 용품 지원을 위한 '행복한맘 태교교실' 운영비용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올해로 운영 7주년을 맞이하는 '행복한맘 태교교실'은 다문화 가정 여성이 국내 정착 후 출산·양육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으로 겪는 정서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시작된 사회 공헌 활동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후원금과 더불어 참석한 출산 예정인 25가정을 대상으로 25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키트(분유, 기저귀 등)를 전달하고 다문화가족 태아와 산모를 위한 2023 행복한맘 태교교실 음악회를 개최했다.

한남이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본사 임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기부하고, 직원의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적립하는 매칭그랜트를 통해 마련된 '행복나눔기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남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가치 이행을 위해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요 소식

SEP+OCT 2023

## 03

### 고객서비스분야 청렴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열사용시설 업무 청렴문화 확산, 안전문화 조성 및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사용시설 시공사(5개사) 및 안전점검 용역사(7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업체 구성 협력사는 지역난방 열사용시설 시공, 사용자 정기안전점검 및 열계량장치 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 열사용시설기준 제도 운영
- 지역난방 진단 및 컨설팅
- 설비관리자 냉난방 관리 교육

#### 협업체(열사용시설 시공사 및 용역사)

- 열사용시설 설계 및 시공
- 정기 안전점검 시행
- 거래용 적산열량계 유지보수

한남은 현재 공동주택 182만호와 건물 2,870개소에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약 170개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서 협력사와 업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열사용시설 점검분야 투명성 강화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한 '열사용시설 점검분야 해피콜 제도'를 신설하고,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열사용시설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

## 04

### 한국지역난방공사, 추석 연휴 대비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추석연휴 기간 중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주요 설비 위험 구역 등 안전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은 CEO 경영방침 중 하나인 현장중심의 '안전경영' 확립을 위해 전 경영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약지점 관리상태,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별 안전점검 첫날에는 정용기 사장이 분당지사 관할 열수송관 공사현장과 가압장을 직접 점검하고, 굴착공사 및 전기 작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철저한 안전의식으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 7+8월호 독자의견을 소개합니다

### 김\*경 님

'효율, 놀리기' 코너를 읽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에너지효율 플러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신\*범 님

'여기서 행복' 코너 잘 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새 추억을 쌓아가는, 화목한 가정을 보니 마냥 부럽네요. 아가들이 너무나 귀여워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아빠의 얼굴에 번지는 웃음이 너무 환했습니다.

### 김\*아 님

'이런 문화'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요즘은 고객들의 소비 성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일반 상품보다는 브랜드와 관련된 제품,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팬을 대상으로 한 제품 등등. 그만큼 개인의 취향과 팬덤 문화가 상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서\*이 님

권오철 사진작가님을 <따뜻:한남>에서 만나니 너무 기분 좋습니다. 6년 전 작가님과 옐로나이프 관광을 같이 가서 오로라를 봤거든요. 여전히 열정, 꿈, 희망을 주는 깊은 메시지에 다시 한번 감동했네요. 독자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오로라를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좋은 기사 많이 소개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 독자와 함께하는 <따뜻:한남> 이벤트

event

①

### 생각 보태기

'살면서 겪었던 기적 같은 일은 무엇인가요?'

웹진을 통해 생각을 적어주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1만 원

### 독특 앙케트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가요?'

웹진을 통해 답변을 적어주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5천 원

event

②

### 웹진에서 따소미 찾기

웹진에

'달 안에서 떡방아 찧는 따소미'가 숨어있습니다. 찾아주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5천 원

event

③

### <따뜻:한남> 보고 의견 남기기

좋았던 기사,

소개되었으면 하는 내용 등 <따뜻:한남>을 읽고 의견 남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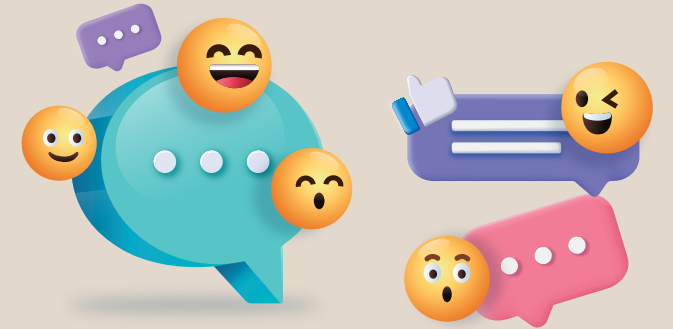
모든 이벤트는 <따뜻:한남> 웹진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웹진'을 검색해 주세요.

## 가을에도 한남 SNS로 가보자고!

올가을에도 한남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드립니다.

재미도 풍성! 정보도 풍성! 계속 보고 싶은 SNS로 놀러 오세요~!



한국지역  
난방공사와  
함께하는  
2023  
파크콘서트!



YouTube

www.youtube.com/kdhcmedia



올가을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파크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 한남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팬텀싱어3>에서 우승한 라포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음악으로 하나 되었던 2023 파크콘서트~! 유튜브로 함께할까요?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NAVER blog

blog.naver.com/kdhc2017



지진으로 흔들릴 때, 건물 밖으로 나갈 때, 안전한 대피 장소,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등 한남 블로그에서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조정 대상 및  
금액 개정안



facebook

www.facebook.com/FKDHC



지난 8월 21일 김영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이번 추석부터 적용되었는데요. 개정된 시행령 함께 볼까요? 한남 페이스북에서 따소미가 알려준대요.

시가 탄소  
배출량도  
줄인다고?



Instagram

www.instagram.com/kdhc\_on



인간과 유사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AI. 이 시는 어느새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농업, 제조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세요! 🌱